

경제

포스코, 광양제철에 5조 투자

2013년까지 8개 신증설사업 추진

고용창출 2천여명...지역경제 활력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향후 5년간 다양한 신증설사업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

고용창출은 2천여 명에 달해 광양만 권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증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후관공장의 경우 1조5천억원을 들여 32만8천890㎡ 규모로 2010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연간 2천t의 선박용 등 판재를 생산하며,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또 5천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만2천㎡의 부지에 구축할 부생복합발전소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다. 발전능력 15만㎾ 2기를 오는 2011년 3월까지 완료한다.

이와함께 5코크스설비(원료탄을 건류시켜 코크스 생산)에 4천400억원, 5소결설비(고로에서 철광석 환원 작용 원활화하는 공정)에 9천900억원을 투입해 각각 2011년 9월, 12월 준공 예정이다.

600억원이 투입된 RHF공장(생산 공정 중 발생된 부산물을 회수해 제선원료로 재활용)은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받아 26만4천880㎡의 부지를 확보해놓은 페로망간공장 조성사업에는 2천20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 마무리된다.

이밖에 1조원 규모의 SNG사업(석탄 합성가스로부터 천연가스를 합성해 LNG로 대체하는 사업)은 전남도와 협의 중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현재 건설이 진행중이거나 사업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들 모두 포스코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춰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강재 전문제철소를 거느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최근 세계 최초로 590MPa(메가파스칼) 자동차 외관용 합금화용융아연도금 강관을 개발,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강관은 차체 무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자동차 연비를 크게 높여줘 세계 자동차업체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박영진기자 dhkim@



GS칼텍스 허동수(앞줄 가운데) 회장과 (우측일 현창수(앞줄 왼쪽 네 번째) 대표 등 협력회사 대표들, 정호열(왼쪽 다섯 번째)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GS타워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상생펀드 200억 출연

1천여 中小 협력사 지원한다

GS칼텍스가 상생펀드에 200억 원 출연하는 등 GS그룹 9개 계열사가 1천여중소 협력회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GS그룹은 27일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중소 협력회사와 'GS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식'을 가졌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협약식에서 "GS칼텍스는 1967년 창립 이래

현금결제 원칙을 고수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앞으로 협력회사의 은행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론을 도입해 우수 협력회사에 은행대출을 알선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협력회사에 대한 현금 결제를

100%를 현대대로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 등의 제도를 확대 시행해 협력회사의 자금흐름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 공동참여, 시범장비 무상 제공을 통한 제품개발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산 10만t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공장 금호석화, 여수에 2,200억 들여 짓는다

금호석화학이 여수산업단지에 연산 10만t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생산설비 구축에 나선다.

금호석화학은 27일 전남도청 정약홍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기옥 금호석화학회장 대표, 김경수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2천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금호석화는 2013년까지 여수산단

에 2천억원을 투자해 연간 10만t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양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취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은 고압액화기술(High-Pressure Liquefying Technology·HPLT)을 적용해 해조류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첨단 에너지원이다.

바이올시스템즈가 원천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금호석화학의 양산에 앞서 2011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전남도내 하루 약 4천t 규모의 생산시험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이들 기업은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국내외에 해조류 양식장 확보와 양식기술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연중 해조류 생산이 가능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1만ha 규모의 대규모 양식장을 확보해 2013년 양산시기에 맞춰 연간 50만t의 해조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쇠고기이력제 제도 10월 5일까지 연장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8월 말까지로 정했던 쇠고기 이력제 제도의 기간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축산물의 유통 여건상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은데, 이 제도가 이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기간을 늘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제도 기간 뒤에는 정육점 등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기간에도 식육 판매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과 교육을 계속 벌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 당 1천693원



지역 휘발유값 연중 최고치

국제 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주유소 휘발유 값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깨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 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26일 현재 주유소 판매 보통휘발유의 평균가격은 광주와 전남 모두 ㎥ 당 1천69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한달 전인 7월 넷째주에 비해 광주는 5.2%인 84원, 전남은 4.8%인 77원이 오른 것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휘발유에는 못 미치지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다. 26일 기준 경유 판매가는 ㎥ 당 1천460원으로 1개월만에 4.9%인 68원, 전남은 1천458원으로 같은기간 4.3%인 60원이 올랐다.

특히 올들어 광주지역 기름값 상승률은 휘발유가 30%를 넘어섰고 경유는 15%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올 초 ㎥ 당 1천273원인 것이 8개월만에 32.9%인 419원이 급등했다. 경유 가격도 올 초 ㎥ 당 1천260원에서 최근 1천460원으로 14.8%인 187원이 올랐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Financial summary box containing: 코스피지수 1,599.33 (-14.79), 코스닥지수 513.60 (-3.36), 금리 (국고채 3년) 4.31% (-0.05), 원·달러 환율 1,248.70원 (+3.4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금남지하상가 밤새 무슨일이?

26일 자정까지 점포 100% 임차계약 신청

대부분 합의서 첨부 안해 공개 입찰 가능성

금남지하상가 1공구 점포에 대한 임차인 신청 기준을 둘러싸고 분양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 신청 마감인 26일 204개 점포 모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5시부터 40여 개 점포만 접수했으나, 뒤늦게 나머지 점포가 무더기로 신청서를 낸 것. 이 때문에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 담양직립들은 자정까지 업무시간을 연장해 일단 서류 접수를 끝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들 서류를 근거로 오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임대점포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분양자와 세입자의 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아, 여전히 공개경쟁입찰 가능성은 높은 실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직영점포 41곳을 제외한 163개의 분양 후 임대 점포 중 합의서가 첨부된 것은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118개 점포의 경우 오는 31일 계약 만료시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 관계자는 "분양자와 세입자들이 일단 서류는 접수해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며 "분양자와 세입자 간 물밑접촉이 계속되고 있으나 상당수 분양자들이 합의에 반대하고 있어 31일까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자 수십 명이 이날도 광주시청에 몰려가 '분양자 권리 인정'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분양자 모임 관계자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의 임차인 신청공고에 대한 효력정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임차인 선정 기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분양자들은 임대차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properties. Contact: 062)236-3400.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Contact: 062)951-6800, H.P. 010-3666-8949.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services and listings. Contact: 010-223-1140, 0210 011-602-2532.